



주간통일정세 2008-52(2008.12.22 ~ 12.28) 발행 통일연구원 발행인 통일연구원장
주소 서울시 강북구 419길 275 통일연구원 (우) 142-728
전화 02) 900-4300 전승 02) 901-2547
E-mail webmaster@kinu.or.kr http://www.kinu.or.kr

주간 통일정세

2008-52

Contents

- >>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2. 대외정세 3. 대남정세
- >>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내정세

가. 김정일 동향

● 김정일, ‘헌법절’ 맞아 군부대 시찰(12/27, 조선중앙통신)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헌법절’(12.27)에 즈음해 ‘오중흡7연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제323군부대 지휘부를 방문하고, 공군 제1017군부대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통신은 그러나 김 위원장의 시찰 날짜는 밝히지 않음.
- 김 위원장은 제323군부대 지휘부를 방문, 이 부대가 “전투정치훈련에서 전군의 모범이 되고 조국보위와 사회주의 건설에서 대중적 영웅주의를 발휘함으로써 우리 당의 선군영도를 언제나 앞장에서 받아들여온 전통있는 부대”라고 강조하고 군인들의 훈련을 참관했다고 통신은 보도
- 이날 제323군부대 지휘부 방문에는 김정각 군 총정치국 제1부국장, 군 대장들인 현철해, 김명국을 비롯한 군대 지휘간부와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이 동행
- 김 위원장은 또 ‘오중흡7연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공군 제1017군부대를 시찰, 부대의 경계근무 수행상황을 살펴본 후 비행사들의 훈련을 참관했다고 통신은 보도
- 공군부대 시찰에는 김정각 제1부국장, 군 대장들인 현철해, 김명국과 노동당 중앙위원회 책임간부들이 동행했으며, 현지에서 리병철 공군 사령관과 군부대 지휘관들이 그를 맞이했음.

● 김정일,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 시찰(12/25, 조선중앙방송)

-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평안남도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를 시찰했다고 조선중앙방송이 25일 보도, 방송은 김 위원장의 시찰 날짜는 밝히지 않음.
- 그는 시찰에서 “2012년까지 강성대국의 대문을 활짝 열어제끼려는 것은 당과 인민의 확고한 결심이고 의지”라면서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에서 새로운 혁명적 대고조의 봉화를 지켜올릴 것”을 주문했다고 방송은 보도하고 김위원장이 이 기업소가 “초고력전기로를 자력으로 훌륭히 건설한 데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면서 공로를 높이 평가”했다고 보도
- 이번 현지지도에는 박남기 당 중앙위원회 부장, 리태남 평안남도 당위원회 책임비서, 주규창 리제일 당 군수공업부 제1부부장이 수행



● **김정일, 전용열차로 움직이는 듯(12/22, 연합)**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에도 불구하고 북한 매체들이 김 위원장의 현지 시찰을 잇따라 보도하고 있는 가운데 한·미 정보당국은 김 위원장이 실제로 현지 시찰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짐.
- 정부 고위 정보소식통은 21일 “그동안 신의주 등을 김 위원장이 방문한 것으로 보도된 시점을 전후해 김 위원장 전용열차가 현지로 이동한 경우가 많았다”고 언급하며 “이런 점을 토대로 각종 정보를 종합한 결과 김 위원장이 실제로 이들 지역을 방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밝힘. 한·미 정보 당국은 미 KH-12 정찰위성과 U-2 정찰기, 한국군 금강 정찰기 등을 통해 김정일 전용열차 등의 움직임을 계속 추적, 전용열차가 움직이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짐.
- 또 다른 정부 소식통은 “여러 정황에 비춰볼 때 지난 8월 중순 쓰러져 북한 특권층 병원인 봉화진료소에 입원했던 김 위원장이 10월 초와 중순 사이에 퇴원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언

나. 정치 관련

● **北, 대결정책 계속시 내년 남북관계 더 악화(12/28,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8일 ‘북남 대결을 계속 추구하려는 망발’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이명박 정부가 내년에도 대결정책을 계속 추구하려 한다면 남북관계는 더욱 악화될 수 있다고 주장
- 이 매체는 최근 통일부 차관이 각종 행사에서 “지금의 남북관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고, “북한에 원칙을 지키면서 유연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한 것 등을 거론, 이는 “내년에도 반통일적 정책들을 계속 추구”하려는 “뚜렷한 증거”라고 비난하면서 이 같이 주장

● **노동신문, 부시 “무가베 퇴진” 요구 비난(12/24,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4일 ‘본전도 못 찾을 소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조지 부시 미국 대통령이 아프리카 지도자들에게 로버트 무가베 짐바브웨 대통령의 축출에 협력할 것을 촉구하면서 “지금은 무가베가 사라져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 데 대해 “엄중한 내정간섭 행위”라고 비난
- 신문은 “반제자주를 지향하는 무가베 대통령은 토지개혁을 실시하여 백인 소유의 토지들을 흑인들에게 분배하였다”며 무가베 대통령에 대한 지지 입장을 나타내고 “미국 집권자가 마치도 ‘국제 재판관’이나 되는 듯이 짐바브웨에 대고 샷대질을 하면서 내정간섭 행위를 하는 것은 국제법과 국제관계규범에 배치되는 행위”라고 거듭 비난

● **선군정치 고수 연일 강조(12/22; 12/24, 노동신문)**

-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7주년(12.24)을 맞아 ‘선군



- 정치' 고수와 국방력 최우선 강화를 연일 강조
- 노동신문은 24일 '최고사령관기를 높이 날리며 선군의 길로 더욱 힘차게 나아가자'라는 제목의 기념사설에서 "장군님(김정일)의 선군사상, 선군정치는 우리 혁명의 백전백승의 기치"라며 "누구나 선군사상의 열렬한 신봉자, 철저한 옹호관철자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
 - 신문은 또 "모든 부문, 모든 단위에서 당의 선군혁명 노선의 요구대로 나라의 국방력 강화에 최우선적인 힘을 쏟으며 인민군 군인들을 성심성의로 적극 원호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김 위원장이 "올해에도 정초부터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오늘까지 끊임없는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경제강국 건설"에 매진할 것을 촉구
 - 앞서 22일 노동신문도 김 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 '정론'을 통해 김 위원장의 선군정치를 "군대가 곧 당이고 국가이며 인민"이라는 말로 표현하며 "세계정치라는 마차가 어떤 바람을 타고 어떤 길로 질주하건 우리는 선군혁명의 궤도에서 한 발자욱도 탈선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

● 北, 통일적 반동세력 잿더미 만들것(12/23, 노동신문)

- 김일철 인민무력부장은 23일 남한이 북한을 '선제타격'하면 "사소한 선제타격 움직임에 대해서도 그보다 신속하고 더 위력한 우리 식의 앞선 선제타격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그는 이날 평양 4.25문화회관에서 열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17주년 중앙보고대회에서 "남조선의 호전광들은 핵무기보다 더 위력한 타격수단에 의거한 우리 식의 선제타격이 불바다 정도가 아니라 반민족적이고 반통일적인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고 그 위에 통일조국을 세우는 가장 단호하고 무자비한 정의의 타격전으로 될 것이라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
- 김일철 부장은 고 김일성 주석 출생 100회째인 "2012년에 강성대국의 대문을 열어놓을 데 대한 당의 웅대한 목표를 빛나게 실현해야 한다"며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을 결정적으로 치켜 세우며 농업혁명, 경공업혁명의 불길을 지펴올려 식량문제, 인민소비품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

● 北, 김정일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 행사 개최 중(12/24, 연합)

- 북한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인민군 최고사령관 추대 17주년과 그의 생모인 김정숙의 91회 생일이 겹친 24일을 앞두고 각종 기념 행사를 개최, 기념행사는 중앙보고대회를 비롯해 각계 주민과 사회단체들의 경축 모임과 예술공연이 주류를 이룸.
- 북한에서도 성탄절을 맞아 평양 봉수교회와 칠골교회, 장충성당 등에서 성탄기념 예배나 미사를 보고는 있지만, 일반 주민은 크리스마스가 있는지도 모른 채 이들 행사를 치르느라 분주함.



● **北, 연일 남북관계 악화 ‘南책임론’(12/22, 노동신문; 12/20, 통일신보)**

- 북한이 연일 각종 보도매체를 동원해 남북관계 경색의 책임을 남한 정부의 대북 “대결 정책”에 돌리며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선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의 이행 표명이 선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강조
- 노동신문은 22일 ‘속에 양심을 품은 자들의 대화 타령’이라는 제목의 논평에서 남한 정부가 모든 문제를 상생, 공영의 바탕 위에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하지만 “지금껏 감행해 온 반공화국(반북) 대결 소동과 어울리지 않는다”며 “대화과 대결은 양립될 수 없다”며 “진정으로 대화를 원한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에 대한 존중 입장과 그 이행 의지부터 명백히 밝히는 것이 순차”라고 강조
- 통일신보는 20일 “남조선의 집권세력이 대화에 대한 생각을 털끝 만큼이라도 하고 있다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 이행 의지를 명백히 밝히고 대결정책을 철회하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며 “그것 없이 떠드는 대화 타령은 말장난에 불과할 뿐”이라고 비난

● **北, 美 핵무기 현대화…北경각심 불러(12/22,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2일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도 저들은 핵무기를 계속 현대화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인민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

● **노동신문, 금융위기 교훈은 ‘외자 위험성’ 입증(12/1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7일자는 ‘세계 금융위기는 무엇을 보여주는가’라는 제목의 글에서 최근 미국의 금융위기는 부시 미 행정부가 “침략적인 대외정책을 강행하면서 막대한 군사비를 지출한 것이 중요한 원인의 하나”라며 이것이 주는 교훈은 “서방 열강이 다른 나라, 민족들의 자주권을 유린하는 침략적인 대외정책을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는 것”이라고 주장
- 이어 신문은 “올바른 경제이론과 과학기술에 의거한 경제발전을 추동하지 않고 생존경쟁에 의거한 무질서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면 언제 또 경제위기를 겪을지 알 수 없다”며 이번 사태는 “외자를 마구 받아들이다가는 민족경제를 망치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강조

다. 경제 관련

● **北, 내각 금속공업상에 김태봉 기용(12/28, 조선중앙방송; 평양방송)**

- 북한 내각의 금속공업상(相, 장관)이 김승현에서 김태봉으로 교체된 것으로 확인됨. 이 같은 사실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최근 시찰한 평안남도 천리마제강연합기업소의 종업원들이 28일 현지에서 쫓겨모임을 개최한 소식을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이 전하면서 이날



모임에 김영일 내각총리와 함께 “김태봉 금속공업상”이 참가했다고 보도함을써 확인됨.

- 전임 김승현 금속공업상은 2003년 9월 최고인민회의 제11기 1차 회의 때 금속기계공업상에 올랐다가 2005년 5월 금속기계공업성이 금속공업성과 기계공업성으로 분리되면서 금속공업상을 맡아왔음. 신임 김태봉 금속공업상의 신상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음.

● 美 대북 지원식량 6차분, 내년 1월 3일 도착(12/28, 미국의소리방송)

-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식량 50만t 중 6번째 선적분인 옥수수 2만1천t이 다음달 3일께 북한에 도착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
- VOA는 비정부기구(NGO)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옥수수 2만1천t이 미 국적선 ‘이스턴 스타’호에 실려 1월3일께 남포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머시코, 월드비전,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5개 미국 NGO들이 평안북도와 자강도 내 25개 군에서 분배할 계획이라고 전언

● 北 ‘복권형 채권’ 추첨(12/26, 조선중앙TV)

- 북한이 2003년 발행해 주민들에게 판매했던 ‘인민생활공채’의 7차 추첨행사가 22일 평양시 중구지점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TV가 26일 보도
- 이번 추첨에서는 액면가 500원 및 1천원권, 5천원권 순서로 각각 1~7등까지 당첨번호를 뽑았음. 당첨금은 등수에 따라 1등은 액면가의 50배를 지급받게 되며 2등 25배, 3등 10배, 4등 5배, 5등 4배, 6등 3배, 7등 2배를 받음.
- 북한은 2003년 5~11월 500원, 1천원, 5천원권 등 모두 3종의 10년 만기 인민생활공채를 판매했으며 1년 1~2차례 추첨을 실시해 당첨금과 함께 원금을 중도에 상환해주고 있음.

● 美 대북 지원식량 7차분, 내년 1월 중순 도착(12/26, 미국의소리방송)

- 미국 정부가 북한에 지원하는 식량 50만t중 7번째 선적분인 4천940t이 내년 1월 중순께 북한에 도착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6일 보도
- VOA는 비정부기구(NGO) 관계자의 말을 인용, 1월 19일까지 남포항에 ‘옥수수와 콩 혼합물’과 식용유가 도착할 예정이라며 11월 중순 지원된 5차분 2만5천60t과 마찬가지로 이번 선적분도 머시코, 월드비전,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5개 미국 NGO들이 평안북도와 자강도 내 25개 군에서 분배할 예정이라고 보도
- 미국 정부는 대북식량 지원이 시작된 6월부터 지금까지 5차에 걸쳐 14만3천330t의 식량을 전달했으며 이 중 4만5천260t은 NGO들을



통해 분배됐고 나머지 9만8천70t은 세계식량계획(WFP)이 함경남북도, 량강도, 강원도, 황해남북도, 평안남도, 평양 등 8개 지역에 분배했음. 12월 말께 북한에 도착하는 6차분 2만1천t은 WFP에 의해 분배될 예정

● 北, UNDP 사업자금 전용방지책에 동의(12/23, 자유아시아방송)

- 유엔개발계획(UNDP)은 내년 상반기 대북 사업을 재개기로 하면서 북한 당국, 북한인 직원과 사업자에게 현금을 지급할 때는 달러, 유로화 등으로 교환이 가능한 일종의 외화태환권인 ‘외화와 바꾼 돈표’로 지불기로 북한 당국과 합의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23일 보도
- ‘외화와 바꾼 돈표’는 일반 화폐와 달리 북한 내에서 외국인들이 사용하도록 조선대외무역은행이 발행하는 일종의 외화태환권이며, 8종(1, 5, 10, 50전과 1, 5, 10, 50원권)이 유통되고 있음. 미국이 UNDP의 대북 지원사업에 제동을 걸 때 가장 문제삼았던 것이 지불수단으로 달러, 유로화 등을 사용한 점이었음.
- UNDP의 대북 사업재개 조건으로 또 UNDP가 현지 직원을 채용할 때는 종래와 달리 최소한 3명의 후보자 명단을 북한 당국으로부터 제출받아 면담과 서류시험을 통해 1명을 최종 선발하는 경쟁채용 방식을 택하고, 이들 직원의 임금은 북한 당국을 통하지 않고 각 지원의 이름으로 수표를 발행하거나 직원 명의로 된 은행 계좌에 입금하는 직접지급 방식을 취하기로 북한 당국과 UNDP는 합의
- 북한 당국은 이와 함께 재무와 금융 분야에서 UNDP의 명백한 서면허가 없이는 UNDP의 이름이나 상징(emblem)을 사용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함. 이는 북한이 지난 2002년 UNDP 전용계좌를 이용해 수백만 달러를 해외로 불법 송금한 의혹이 제기됐으나 정작 UNDP는 이를 몰랐던 것으로 밝혀진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고 RFA는 보도

● 北, 비료생산에 석탄가스 이용 시설 공사 중(12/23, 조선신보)

- 북한의 대표적인 화학산업 공장인 남흥청년화학연합기업소가 원유에서 나오는 나프타 대신 석탄을 태워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 비료를 비롯해 탄산소다, 폴리에틸렌 수지 등 각종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시설 건설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북한의 신문과 TV방송 등은 이 공사 진척 상황을 자주 소개해 북한 당국이 이 석탄가스화 공정에 쏟는 관심을 보여주고 있음.
- 외국에서 수입해야 하는 나프타 대신 석탄 연소 때 나오는 가스를 이용해 화학제품을 만드는 이 공정은 북한에 풍부하게 매장된 석탄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북한 당국은 각종 화학제품의 증산, 원료비 절감, 석유 의존도 완화 등 여러가지 커다란 경제적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북한 당국이 남흥청년화학련합기업소에 석탄가스화 공정을 설치키로 한 것은 이 기업소가 있는 안주시는 물론 주변의 개천, 덕천, 순천 등이 모두 북한 굴지의 탄광들이니 점을 감안한 것임. 이 기업소에 석탄가스화 공정을 도입하는 것은 이미 2006년 결정됐으나 실제 공사는 지난 5월 시작돼 11월 현재 40%의 공정을 보이고 있다고 조선신보는 전언

라. 사회·문화 관련

● 농업과학원 창립 60주년 보고회(12/27, 조선중앙통신)

- 북한의 농업과학원 창립 60주년 기념보고회가 26일 평양 인민문화궁전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보도, 김영일 총리, 최태복 당 중앙위 비서, 로두철 부총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보고회에서는 노동당 중앙위 축하문이 전달됐으며 계응상 농업과학원장이 보고를 했음.

● 평양 궤도전차 노반보수 마치고 운행 재개(12/27, 조선신보)

- 북한이 평양 만경대(송산역)에서 평양역까지 총 22km의 궤도전차 구간중 평양역-광복거리입구(정입다리) 사이의 15km구간의 노반 개보수 작업을 마무리하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최고사령관 추대 기념일인 24일에 맞춰 전차운행을 재개했다고 조선신보가 27일 보도
- 북한은 이번 노반 개보수를 통해 그동안 도로 중심선에 놓여있던 궤도전차 노반을 보도 옆으로 옮기고 노후한 레일을 교체했으며 전차도 20대 증차하였음.
- 신문은 이 공사가 지난 5월 말부터 진행돼 왔으며 이번에 공사가 완료된 1단계는 평양역부터 정입다리까지의 약 15km구간이라고 소개하고 광복거리 입구부터 차량기지인 만경대까지의 제2단계 공사로 내년 봄 시작된다고 보도

● 김일성大, '증보문헌비고' 번역 중(12/27, 조선신보)

- 김일성종합대학이 고대 이래 조선시대까지 문물을 종합 정리한 백과사전격인 '증보문헌비고(增補文獻備考)'에 대한 번역 사업을 2012년 완료를 목표로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조선신보는 27일 "방대한 민족고전으로 알려진 '증보문헌비고'에 대한 전면적인 번역사업이 김일성종합대학에서 추진되고 있다"며 "증보문헌비고는 조선 고대, 중세의 정치, 경제분야의 제도와 문화를 항목별, 연대순으로 나누어 서술한 책"이라고 소개

● 北, 아시안피겨트로피 金 2개 수상(12/27, 조선중앙방송)

- 북한은 12월 23일 홍콩 주룽 '메가아이스' 실내링크에서 끝난 2008-2009 아시안 피겨스케이팅 트로피 대회에서 리성철이 남자부



시니어싱글에서, 송미향과 정영혁이 시니어 페어에서 각각 우승, 금메달을 목에 걸음. 또 리기향과 태원혁은 시니어 페어에서, 장주혁은 주니어 싱글에서 각각 동메달을 수상

● 北, 남한 드라마 막아라 통제 고삐(12/24, 연합)

- 북한 당국은 최근 남한 드라마가 담긴 DVD나 남한 방송이 잡히는 라디오 등을 통해 유입되는 ‘한류(韓流)’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판단, 통제의 끈을 바짝 조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한 대북 소식통은 24일 “남한에서 30회쯤 진행된 드라마의 경우, 이르면 10회쯤 되는 내용이 중국 등에서 DVD로 복사돼 북한에 들어와 북한 전역의 장마당을 통해 금방 주민들에게 퍼진다”고 했으며 이를 단속해야 할 국경수비대나 보위부원들 상당수는 상인들로부터 뇌물을 받고 눈감아 주는 것으로 전해짐.
- 지난 17~18일 개성공단을 방문했던 국방위원회 김영철 정책실 국장(중장)은 공단 관계자들을 만나 남측에서 인기를 얻었던 드라마 ‘이산’의 대사 중 “백성은 소용돌이 치는 물이고, 임금은 물 위에 뜨는 배”라는 대목을 인용하기도 했음.
- 정보 당국자는 “특히 북한이 IT산업을 발전시킨다며 2006년 자체 DVD 플레이어를 개발했는데 이것이 오히려 남한 드라마를 퍼뜨리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북한인권문제를 다루는 시민단체인 ‘북한민주화네트워크’는 최근 소식지에서 “12월 초부터 청진시 장마당에서 한국 드라마 뒤에 성인영화를 붙여 넣은 ‘알판’(DVD)이 발견돼 보안원(경찰)들이 집중 단속에 나섰다”고 소개됨.
- 라디오도 한류 확산에 한몫을 한 것으로 분석됨. 원래 북한에서 라디오는 보안서(경찰서)에 신고한 뒤 주파수 채널을 납땜으로 고정해야 사용할 수 있었으나 중국에서 라디오가 대거 들어오면서 남한 방송을 몰래 듣는 주민들이 크게 늘었다고 함. 정부 당국자는 “최근 탈북자를 만나보니 남한 드라마 주인공은 물론 뉴스 진행자 이름까지 알고 있더라”고 전언. 또 평양 이남 지역에선 위성 안테나를 달면 남한 방송이 잡히기 때문에 “일부 고급 간부는 남한 저녁 9시 뉴스는 물론이고 아침 뉴스까지 보고 출근한다”고 정보 당국자는 전언

● 北 10대 사변에 對美관계 2건 포함(12/24, 조선신보)

- 조선신보가 선정한 북한의 올해 10대 뉴스에서 5개를 대외 관계에 할애했으며, 그중에서도 미국과 관계된 것을 2개나 포함되어 있음. 뉴욕 필하모닉 교향악단의 평양 공연(2번째)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9번째)가 선정됨, 또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방북은 6번째, 러시아와의 라진-하산 철도 연결 공사의 착공은 8번째로 들고, 남북관계 악화를 가장 마지막인 10번째에 뒀음.
- 조선신보는 제일 먼저 내세운 ‘경축행사와 9월 5일담화, 승리와 영광의 자랑찬 총화’라는 항목에서 “건국 60돌을 맞은 평양은 명절을 경



축하는 분위기로 들끓었다”며 “경축 행사장은 강성대국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조선(북한)의 국력을 내외에 과시”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9월5일자 담화는 “인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고 주장

- 2번째 뉴욕 필의 평양 공연에 대해 신문은 “새로운 정세 발전의 흐름을 보여주는 사변으로서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고 평, 3번째 사건은 ‘평양시 개건현대화’. 조선신보는 “일대 계기점을 맞이한 올해 수도 평양의 면모가 크게 달라졌다”며 “내년 이후도 개건현대화 사업은 계속된다”고 전언
- 4번째의 성화 봉송에 대해 조선신보는 “일부 불순세력들의 방해책동으로 인해 세계 각지의 봉화이어달리기에서 혼란이 빚어졌으나 중국 측은 평양에서의 행사는 가장 훌륭한 행사였다고 사의를 표했다”고 평
- 신문은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15) 기념 전국 예술축전’을 5번째로 꼽고, 6번째인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방북에 대해선 “조중(북중)관계의 강화발전을 상징”하며 “날을 따라 발전하는 조중 친선협력 관계를 내외에 널리 과시했다”고 설명
- 신문은 9번째인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조미(북미) 신뢰조성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고, 마지막으로 든 ‘12.1조치 단행, 전면차단 기로에 선 남북관계’ 항에선 “남조선(남한)에서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권의 반복 대결정책으로 인해 북남관계는 전면차단의 중대기로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북측은 12.1조치가 1차적이라며 후속조치도 시사하였다”고 덧붙임. 신문은 8번째인 라진-하산간 철도 연결 착공은 북한과 러시아간 “첫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새 집단체조 ‘번영하라 조국이어’를 선보인 것도 7번째 10대 뉴스로 선정

● 겨울 민박온천 ‘인기몰이’(12/12, 조선중앙통신; 12/11, 조선중앙방송; ‘NK In & Out’ 7호)

- 북한은 김정일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지난해부터 기존의 온천 요양 및 휴양 시설을 대대적으로 리모델링하는 한편 온천이 많은 지역들에 별도의 손님방을 갖춘 민박 형태의 살림집을 많이 건설해 “전국적으로 온천요양생 수용능력이 거의 2배”로 늘어났음.
- 조선중앙통신은 “함경북도 경성온천, 평안남도 강서·석왕사 약수를 비롯해 온천과 약수 원천이 풍부한 지역에 (민박) 요양마을이 늘어났다”며 “지난해부터 온천, 약수가 나오는 곳마다 요양소들을 개선(개선)하거나 새로 꾸리는 것과 함께 치료용 문화주택들을 일떠세우기 위한 사업이 활발히 벌어졌다”고 전언
- 조선중앙방송도 최근 “온천요양 마을들의 집집마다 온천욕이 한창”이라며 몇몇 지역에 “농촌문화주택 형식의 요양마을들이 새로 일떠선 후 전국적으로 1만 수천명의 주민이 온돌방에서 숙식을 하며 광



천 의료봉사를 받았다”고 소개

- 온천은 휴양 뿐 아니라 치료 장소로도 각광받고 있음. 평안남도 양덕 온천요양소를 비롯한 많은 온천시설들에서 초단파, 초음파, 자외선, 적외선, 레이저 치료 등 물리치료와 함께 감탕(진흙) 치료도 병행, 특히 온천과 감탕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 요양 및 휴양시설은 북한 상류층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평양의 부유층 사이에서 이곳 요양권이 북한 돈 20만원(노동자 한달 월급 평균 3천원) 수준으로 거래되고 있다며 “평양에서는 맛보기 어려운 각종 회와 털게, 가리비 같은 조개류, 오징어와 물회 등의 싱싱한 수산물을 마음껏 맛볼 수 있기 때문에 더 인기가 좋다”고 설명

2. 대외정세

가. 6자 회담관련

● EU, 북핵검증 합의 실패 유감(12/23, 연합)

- 유럽연합(EU)이 12월 8~1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북핵 검증의정서 합의에 실패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 EU 이사회는 22일 의장국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 핵무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최근 회의가 기대했던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음을 주목한다”고 지적
- 성명은 “EU는 지난 2년간 괄목한 성과를 낸 6자회담을 지지하지만 최근 회의에서 (북한의 핵 폐기) 검증에 관해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임. 성명은 이어 “EU는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및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도록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끝을 맺음.

나. 북·미 관계

● 검증합의 실패후 北악단 美공연 불투명해져(12/24, 미국의소리방송)

- 미국 뉴욕의 민간단체인 코리아 소사이어티가 추진해온 북한 조선국립교향악단의 방미 연주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4일 코리아 소사이어티 이사장인 도널드 그레그 전 주한 미 대사의 말을 인용해 보도
- 그레그 전 대사는 북한 교향악단의 방미 연주에는 많은 자금이 필요한데 차기 미 행정부의 대북정책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단체들이 자금 지원에 나서기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배경을 설명, 그는 특히 최근 북핵 6자회담에서 핵검증체제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못한 이후 북한 교향악단의 방미초청에 부정적인 견해가 미 국무부내에서 일부 제기됐다고 전언



- 코리아 소사이어티의 에번스 리비어 회장도 북한 교향악단의 방미를 “매우 신중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말했다고 VOA는 보도, 리비어 회장은 다만 “북한 교향악단의 미국 방문에 대해 국무부 내에 조용한 지지가 있다”면서 “그같은 지지가 앞으로 몇달 동안 지속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임.

● **국무부,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 계속(12/23, 미국무부)**

-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식량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면서 12월 말께 2만1천t의 식량이 북한에 도착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23일 밝힘. 이번 달 말에 북에 도착하는 식량은 6차 지원분임. 미국은 그동안 5차례 걸쳐 북한에 옥수수과 밀, 콩 등 곡물 14만3천330t을 보냈고 지난 5월 1년에 걸쳐 50만t 규모의 대북 식량지원을 약속한 바 있음.
- 손 매킨 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식량 지원과 관련, “인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이라며 “멀지 않은 시기에 2만1천t의 식량이 배달돼 북한 전역에 전달될 것”이라고 언급
- 하지만, 매킨 맥 대변인은 북핵 6자회담 진전을 위한 북한과 접촉 계획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언급

● **라이스 미국무장관, 북한을 믿는 사람은 바보(12/21, 미국의소리방송)**

- 콘돌리자 라이스(Rice) 미 국무장관은 19일 외교관계협의회(CFR)에서 가진 강연회에서 “북한을 신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북한을 믿는 사람은 바보”라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검증의정서를 협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보도
- 라이스 장관은 이어 “북한의 나쁜 행동을 보상할 수는 없다”며 “불능화와 검증 절차가 완료되기 전까지 북한은 그들이 절실히 필요로 하고, 또 원하는 증류 지원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언급
- 라이스 장관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 검증 의정서가 있긴 하지만 일부 모호한 점이 있으며, 북한은 의정서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호한 점들에 대해 문서 보장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 라이스 장관은 또 6자회담의 성과에 대해 “2005년 6자회담 개시 이후 북한은 플루토늄 생산을 하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영변 원자로를 폐쇄하는 등 6자회담이 성과를 거뒀다”고 설명

다. 북·중 관계

● **주북 中대사, 내년 북중교류·협력 높은 수준 발전(12/27, 조선중앙통신)**

-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대사는 북한과 중국간 수교 60주년을 맞는 2009년 양국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언급, 그는 26일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신년 연회 연설에서 “두 나라 사이



의 외교관계 설정 60돌이 되는 해인 2009년은 매우 뜻깊은 해로 될 것"이라며 "이 해에 두 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중·조 친선협조 관계의 보다 휘황한 장을 아로새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소개

- 북한의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도 연회에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조중 친선의 해'를 계기로 각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것을 믿는다"며 "앞으로도 조중 친선의 화원을 더욱 만발하게 하기 위하여 중국 동지들과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

● **中랴오닝성 군인, 北선박 어민6명 구조(12/26, 흑룡강신문 인터넷판)**

- 중국 인민해방군이 동력을 잃고 사흘 째 표류중인 북한 어선을 구조하고 어민 6명 전원을 24일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흑룡강신문이 26일 인터넷판에서 보도, 이 신문은 인민해방군이 랴오닝성 단둥 근해에서 동력을 잃은 채 유빙에 얼어 붙어 있던 북한 어선 한 척을 구조하고 배에 타고 있던 남자 5명과 여자 1명 등 어부 6명을 북한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

● **中대사, 北언론인 초청 연회(12/23, 조선중앙통신)**

- 새해를 앞두고 류샤오밍(劉曉明) 주북 중국대사가 22일 대사관에서 북한 언론 관계자들을 초청해 연회를 열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3일 보도. 류 대사는 이에 앞서 인민무력부와 외무성 간부들을 위한 연회도 개최함.

라. 기타외교 관계

● **北-이집트 문화협정 50돌 친선모임(12/25, 조선중앙통신)**

- 북한과 이집트간 문화협조협정 체결 50돌을 기념한 북한과 이집트 친선모임이 25일 평양 대동강외교단회관에서 열렸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 모임에는 타레크 아흐메드 마흐푸즈 북한 주재 이집트 임시대리대사와 북한에 체류 중인 이집트 인사들이 초대되었음.

3. 대남정세

● **제주감귤 북한 보내기 중단 위기(12/26, 연합)**

- 제주도민들이 노지감귤을 인도적 차원에서 북한동포에게 보내는 사업이 11년 만에 중단될 위기에 놓임. 26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통일부는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를 열고 사단법인 남북협력제주도 민운동본부가 감귤과 당근을 북한동포에 지원하기 위해 물자수송비로 신청한 20억4천만원을 지원하지 않기로 결정



- 제주도 관계자는 “남북협력도민운동본부가 10년간 지속돼 온 이 사업의 연속성 유지를 위해 통일부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지원을 요청했으나 정부가 남북관계 경색에 따라 지원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언급
- 제주도는 이 기금이 지원되면 2008년산 감귤과 당근 1만톤을 북한에 보낼 계획이었음.

● 北, 네비게이션 작동 차량 출입금지(12/24, 연합)

- 북한이 개성공단 출입 차량의 네비게이션과 위성항법장치(GPS) 사용을 엄격히 단속하고 있다고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밝힘.
- 24일 관리위에 따르면 북측은 최근 경의선 육로를 사용하는 개성공단 출입 차량의 네비게이션과 GPS 사용을 금지하며 적발시 인원 및 차량을 남으로 복귀토록 한다는 입장을 최근 우리 측에 통보해옴.

● 北, 국군포로·납북자 송환 용의 표명(12/22, 연합)

- 북한은 냉랭해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돌파구의 하나로 6.25전쟁이후 북한에 억류된 국군포로와 납북자 중 일부를 송환할 의향이 있음을 한국측에 내비친 것으로 알려짐. 북한은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여러 채널을 통해 한국과 가진 비밀 접촉에서 이같은 뜻을 전하면서 대신 남북 경협에 신속한 재개를 희망했다고 대북 소식통들이 22일 전언
- 이 소식통들에 따르면 북한은 국군포로와 납북자 중 일부를 판문점을 통해 남측에 보내거나 중국 등 제3국에서 송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임. 우리 정부는 북측의 이러한 제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그 진정한 의도와 구체적인 내용 등에 대한 파악에 나선 것으로 알려짐.
- 국방부는 현재 560여명의 국군포로가 북한에 생존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귀환 국군포로부터 이들의 명단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짐.
- 한편 북한은 남북 경협의 우선 사업으로 ▲무산 철광석 부근에 제철소 건설 ▲나진·선봉지역에 석유화학 단지 건설 ▲식료품 공장 건설 ▲평양 주택 10만호 건설 ▲평양-신의주 고속도로 건설 등을 내세우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소개, 북한은 특히 최근 실세의 하나로 떠오른 장성택 노동당 행정부장이 추진 중인 ‘평양 주택 10만호 건설’ 사업에 남측이 참여해 주기를 바라고 있다고 함.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EU “북핵검증 합의 실패 유감”(12/23)

- 유럽연합(EU)이 지난 8~11일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회의에서 북핵 검증의정서 합의에 실패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음.
- EU 이사회는 22일 의장국 명의의 성명을 통해 “북한 핵무기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6자회담의 최근 회의가 기대했던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했음을 주목한다”고 지적.
- 성명은 “EU는 지난 2년간 괄목한 성과를 낸 6자회담을 지지하지만 최근 회의에서 (북한의 핵 폐기) 검증에 관해 합의가 도출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 성명은 이어 “EU는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 및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시아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이킬 수 없도록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한다”고 끝을 맺었음.

나. 미·북 관계

● “北, 오바마에 더 많은 핵포기 대가 바래” <美誌>(12/28)

- 북한은 내달 20일 출범하는 버락 오바마 차기 미국 정부에 대해 핵 관련 활동을 중단하는 대가로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바라는 것처럼 보인다. 미 시사주간지가 27일 보도.
- ‘유에스 뉴스 앤 월드 리포트’는 이날 인터넷 홈페이지에 실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인에 대한 위기에 빠진 세계의 긴급 요구사항들(For President-elect Barack Obama, the Urgent Demands of a Perilous World)’이라는 글에서 이같이 밝혔음.
- 잡지는 향후 2~5년안에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이란과 더불어 우선적인 핵확산도전이 아시아 끝쪽에서 오고 있다며 “조지 부시 정부 하에서 북한은 핵무기 1~2개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가진 국가에서 8개의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플루토늄을 가진 나라가 됐다”고 지적.
- 잡지는 특히 “이런 사태진전 가운데 대부분은 부시 행정부내 강경파들이 북한의 체제변화를 기대하면서 북한과 진지하고 직접적인 대화를 거부하는 동안 발생했다”면서 “북한은 지난 2006년 핵폭탄 1개의 폭발실험을 함으로써 사실상 핵보유국(de facto nuclear power)가



됐다”고 평가했음.

- 이어 잡지는 “부시 2기 집권 때 미국 외교관들이 대북원조를 대가로 비핵화 합의 및 핵동결, 원자로 시설 일부 불능화 등을 이끌어낸 6자 회담에 참가해왔지만 북한 정권은 오바마 정부에 문제를 떠넘기면서 끊임없이 (6자회담이라는) 도로에 장애물을 만들어왔다”며 북핵 검증의정서 서명을 거부한 채 차기 오바마 정부와 협상하려는 최근 북한의 협상태도를 비판했음. 그러면서 잡지는 “북한은 현재 (북한이) 핵사업을 포기하는 대가로 오바마 정부가 더많은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를 바라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핵폭탄이나 핵관련 인프라를 포기할 의향이 있는 지 조차 전혀 확실치 않다”고 지적. 하지만 잡지는 북한이 바라는 구체적인 요구사항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음.
-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영변핵시설을 불능화하고 핵무기 프로그램 내역을 신고하는 대가로 북한을 테러지원국 지정에서 해제했고 북한에 중유 100만t, 식량 50만t 등을 지원하고 있음.

● “美 대북 지원식량 6차분 내달 3일 도착” <VOA>(12/28)

- 미국 정부의 대북 지원식량 50만t 중 6번째 선적분인 옥수수 2만1천t이 다음달 3일께 북한에 도착한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28일 보도.
- VOA는 비정부기구(NGO) 관계자의 말을 인용, “옥수수 2만1천t이 미 국적선 ‘이스턴 스타’호에 실려 1월 3일께 남포항에 도착할 예정”이라며 멕시코, 월드비전, 사마리탄스 퍼스, 글로벌 리소스 서비스,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등 5개 미국 NGO들이 평안북도와 자강도 내 25개 군에서 분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 미 국무부는 23일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식량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면서 이달말께 2만1천t의 식량이 북한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음.
- 미국 정부는 대북 식량 지원이 시작된 6월부터 지금까지 5차에 걸쳐 옥수수와 밀, 콩 등 곡물 14만3천330t을 전달했음. 이 중 4만5천260t은 NGO들을 통해 분배됐고 나머지 9만8천70t은 세계식량계획(WFP)이 함경남북도, 량강도, 강원도, 황해남북도, 평안남도, 평양 등 8개 지역에 분배했음.
- 미국의 대북 지원식량 7번째 선적분인 ‘옥수수와 콩 혼합물’과 식용유 4천940t은 내년 1월 19일께 북한 남포항에 도착한다고 VOA는 전했다.

● 오바마 취임식 전후 北고위인사 訪美說(12/26)

- 내달 20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전후해 북한 고위인사가 미국을 방문하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는 설(說)이 워싱턴 외교가에 확산되고 있음. 미국 방문설이 나돌고 있는 북한 고위인사는 북



핵 6자회담 북한측 수석대표인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 워싱턴의 정통한 대북소식통은 “내년 1월 중순 이후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 즈음해 북한 고위인사가 미국을 방문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다”면서 “미 정부와 이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말까지 나돈다”고 말했다.
- 오바마 대통령 취임식에 맞춰 북한 고위인사가 미국을 방문할 경우 이 인사는 ▲빌 리처드슨 상무장관 내정자, 매들린 올브라이트 전 국무장관 등 북한과 지속적으로 접촉을 가져온 오바마 행정부내 주요인사의 개인적 초청이나 ▲북미간 인적교류를 해온 비정부기구(NGO)의 초청, ▲가능성은 많지 않지만 미 정부의 공식 초청 등에 의해서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음.

● 미국무부 “인도적 대북 식량지원 계속”(12/24)

- 미국은 북한에 대한 인도적인 식량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라면서 12월 말께 2만1천t의 식량이 북한에 도착할 것이라고 국무부가 23일 밝혔다.
- 이번 달 말에 북에 도착하는 식량은 6차 지원분이다. 미국은 그동안 5차례 걸쳐 북한에 옥수수와 밀, 콩 등 곡물 14만3천330t을 보냈고 지난 5월 1년에 걸쳐 50만t 규모의 대북 식량지원을 약속한 바 있음.
- 손 매킨 맥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북식량 지원과 관련, “인도적인 지원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이라며 “멀지 않은 시기에 2만1천t의 식량이 배달돼 북한 전역에 전달될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세계식량계획(WFP)과 미국의 비정부기구(NGO)들과 협력해 식량 배급활동을 벌이고 있다”면서 식량지원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이를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식량배급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 하지만, 매킨 맥 대변인은 북핵 6자회담 진전을 위한 북한과 접촉 계획에 대해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 그는 “가까운 장래에 어떤 접촉을 할 계획이 있는지 모르지만 6자회담이 앞으로 나가는 데 장애요인은 북한이 검증의정서에 서명을 거부하는 것”이라면서 북한이 검증의정서에 서명하기만 하면 6자회담은 앞으로 나갈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 “北인권 정면승부해야..헬싱키 프로세스 적용”<WSJ>(12/24)

-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 당선인은 북한 인권 문제를 북핵, 경제적 지원 등과 연계시켜 포괄적으로 다뤄 나가야 한다고 제이 레프코위츠 전 백악관 대북 특사가 23일 월스트리트 저널 기고문을 통해 밝혔다.
- ‘북한 인권에 정면으로 맞서라’는 기고문에서 그는 “지난 5년 반 동안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핵 불능화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별다른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면서 “오히려 북한은 이를 이용해 일련의 협정을



체결 또는 폐기하면서 최대한의 양보만 얻어냈다”고 지적. 레프코위츠는 “이는 미국이 협상의 초점을 지극히 협소하게 잡으면서 당근과 채찍 정책의 여지를 거의 갖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 “그런 와중에 북한은 최근 테러 지원국인 시리아의 핵시설 건립을 도와주는 동시에 6자회담에서 지원을 받아내고 있다”고 비판했음.

- 그는 1970년대 중반 미국과 구소련, 유럽 등 35개국이 헬싱키에서 체결한 상호주권존중, 전쟁방지, 인권보호를 위한 협약 이후 동구권의 인권 상황이 개선되고, 급기야 개혁·개방으로 치닫게 됐던 점을 언급하면서 “헬싱키 프로세스는 비록 과정이 느리긴 했지만, 구 소련 정권이 점차적으로 개방의 길로 나아가도록 했고, 자국내 반체제 운동을 활성화 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며 대북 정책에 헬싱키 프로세스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
- 그는 “당시 구소련도 이러한 연계 협상을 좋아하진 않았지만, 자신들이 대화에서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이것이 전제조건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받아들인 것”이라며 “북한도 이를 좋아하지는 않았지만, 궁극적으로 이것만이 북한 주민을 포함한 관련 이해당사자들의 이해를 증진시키는 길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특히 그는 세계은행의 대북 차관, 식량원조 등 중대한 대북 지원은 정치범 석방, 수용소 폐쇄, 이주의 권리 인정 등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분명하고 가시적인 조치들에 대한 반대 급부로 주어져야 한다면서, 이 같은 북한 인권과 경제적 지원 연계 조치는 점차 북·미 양국간 문화·교육의 교류와 궁극적으로 양국 관계 정상화로 발전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음.

● “유엔 대북제재 실패했다” <피터슨연구소> (12/22)

- 북한의 핵실험 강행 후 유엔이 북한의 무역과 무기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내린 제재 조치는 결과적으로 실패했다고 피터슨 국제경제연구소(PIIE)가 22일 보고서에서 밝혔음.
- PIIE의 마커스 놀랜드 선임연구원은 이날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된 보고서에서 유엔의 대북 제재는 북한의 최대 교역상대국인 한국과 중국의 대북 교역에 눈에 띄만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 오히려 북한에 대한 중국의 사치품 수출은 2006-2007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놀랜드 연구원은 강조.
- 유엔은 북한이 2006년 10월9일 지하 핵실험을 강행한 지 5일만에 군사적 목적에 사용될 수 있는 물질, 기술, 서비스는 물론 사치품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는 제재 조치를 결의했음. 그러나 북한은 이러한 유엔의 제재가 사소한 것에 불과할 것이라고 계산했고, 이는 결과적으로 옳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놀랜드 연구원은 지적.
- 그는 그러면서 2005년 마카오의 북한 은행계좌를 동결시킨 미국 재무부의 조치가 유엔의 제재보다 더 효과적이었다고 평가했음.



● 北신문 “美 핵무기 현대화..北경각심 불러”(12/22)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미국이 “다른 나라들에는 핵무기를 보유하지 말라고 요구하면서도 저들은 핵무기를 계속 현대화하고 있다”며 이는 “우리 인민의 경계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 신문은 이날 ‘핵대결의 불씨로 되는 위험한 언동’ 제목의 개인 논평에서 “미 호전세력”이 올해 한미합동군사연습에 핵잠수함을 비롯해 핵 타격수단을 동원하는 등 “대북 군사적 위협책동을 강화”하는 가운데 “핵무기 현대화를 추구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 신문은 “미제의 핵무기 현대화 책동은 우리 인민의 혁명적 경각성을 더욱 높여주고 우리 공화국으로 하여금 그에 대처할 강력한 억제력을 갖추는 데로 떼밀고 있다”면서 “새로운 핵군비 경쟁을 조장.격화시키는 미국의 행동은 핵대결의 불씨를 몰아오고 있고 이것은 결코 그들에게도 좋지 못하다”며 “미국은 핵무기로 세계를 절대로 지배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 신문은 “냉전 종식 후 미국의 군사적 경쟁대상이 없어진 조건에서 미국은 핵우위를 추구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무기 현대화를 계속 추진하는 것”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강력한 군사적 억제력을 가져야 미국과 맞서 자기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국가안전과 전략적 이익을 수호할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하고 있다”고 주장, 북한 ‘핵억제력’ 정책의 당위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 라이스 “북한 믿지 않는다”(12/22)

-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을 신뢰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북한 정권이 핵 프로그램을 포기토록 보다 강력한 절차를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 라이스 장관은 21일(현지시간)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북핵 6자 회담에서 미 정부가 북한을 너무 믿은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그렇지 않다. 물론 우리는 그들을 믿지 않았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은 “현재 우리가 협상을 하는 것은 검증 의정서 문제”라며 이는 아무도 북한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 라이스 장관은 북핵 협상과 관련해 “지금까지 많은 성과가 이뤄졌다”며 “더 많은 것이 달성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예상했다. 라이스 장관은 특히 북핵 문제는 6자회담의 틀 속에서만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며 “그렇지 않다면 북한은 국제사회의 다른 부분에서 혜택을 거두고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거부하던 방식으로 게임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 중·북 관계

● 주북 中대사 “내년 북중교류·협력 높은 수준 발전”(12/27)

-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대사는 북한과 중국간 수교 60주년을 맞는 2009년 양국간 교류·협력을 더욱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26일 중국대사관에서 열린 신년 연회 연설에서 “두 나라 사이의 외교관계 설정 60돌이 되는 해인 2009년은 매우 뜻깊은 해로 될 것”이라며 “이 해에 두 나라는 여러 분야에서 교류와 협조를 높은 수준으로 발전시켜 중·조 친선협조 관계의 보다 휘황한 장을 아로 새길 것”이라고 말했다고 북한의 조선중앙통신이 27일 전했다.
- 류샤오밍(劉曉明) 북한 주재 중국대사는 북한과 중국간 수교 60주년을 맞는 2009년 양북한의 양형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부위원장도 연회에서 “두 나라 사이의 친선협조 관계가 ‘조중 친선의 해’를 계기로 각 분야에 걸쳐 더욱 확대 발전되리라는 것을 믿는다”며 “앞으로도 조중 친선의 화원을 더욱 만발하게 하기 위하여 중국 동지들과 공동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중국의 차기 지도자로 알려진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지난 6월 북한을 방문해 수교 60주년을 맞는 내년을 ‘북중 우호의 해’로 기념하는 것을 북측과 합의했었다.

라. 기타

● 조선신보 ‘북한 10대 사변’에 대미관계 2건 포함(12/24)

- 재일본 조선인총연합회 기관지 조선신보는 24일 북한정권 60주년을 비롯해 북한의 올해 10대 사변(사건)을 선정, 간단한 설명 및 사진을 곁들여 보도.
- 북한의 입장을 대변하는 조선신보가 선정한 북한의 올해 10대 뉴스에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이상설은 물론 포함돼 있지 않고,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관련된 것도 전혀 없어 북한이 ‘세계와 동떨어진 세계’임을 보여줬음. 그러나 베이징올림픽 성화의 ‘성공적 봉송’이 4번째로 올라, 북한 역사 처음으로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올림픽 성화봉송에 참여한 경험이 북한 내부에 준 충격이 예상 외로 큼을 시사.
- 신문은 북한 10대 뉴스 가운데 5개를 대외 관계에 할애했으며, 그중에서도 미국과 관계된 것을 2개나 포함시켰음. 뉴욕 필하모닉 교향악단의 평양 공연(2번째)과 미국의 대북 테러지원국 해제(9번째)가 그것들로, 특히 뉴욕필의 평양공연이 2번째로 오른 것이 눈길을 끄. 신문은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방북은 6번째, 러시아와의 라진-하산 철도 연결 공사의 착공은 8번째로 들고, 남북관계 악화를 가장 마지막인 10번째에 뒀음.
- 조선신보는 제일 먼저 내세운 ‘경축행사와 9월 5일담화, 승리와 영광의 자랑찬 총화’라는 항목에서 “건국 60돌을 맞은 평양은 명절을 경



축하는 분위기로 들끓었다”며 “경축 행사장은 강성대국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조선(북한)의 국력을 내외에 과시”했고,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9월 5일자 담화는 “인민들에게 새로운 힘과 용기를 안겨주었다”고 주장.

- 2번째 뉴욕 필의 평양 공연에 대해 신문은 “새로운 정세 발전의 흐름을 보여주는 사변으로서 커다란 주목을 받았다”고 평했음. 3번째 사건은 ‘평양시 개건현대화’, 조선신보는 “일대 계기점을 맞이한 올해 수도 평양의 면모가 크게 달라졌다”며 “내년 이후도 개건현대화 사업은 계속된다”고 전했음. 4번째의 성화 봉송에 대해 조선신보는 “일부 불순세력들의 방해책동으로 인해 세계 각지의 봉화이어달리기에서 혼란이 빚어졌으나 중국측은 평양에서의 행사는 가장 훌륭한 행사였다고 사의를 표했다”고 말했음.
- 신문은 고 김일성 주석의 생일인 ‘태양절(4.15) 기념 전국 예술축전’을 5번째로 꼽고, 6번째인 시진핑 중국 국가부주석의 방북에 대해선 “조중(북중)관계의 강화발전을 상징”하며 “날을 따라 발전하는 조중 친선협력 관계를 내외에 널리 과시했다”고 설명.
- 신문은 9번째인 미국의 테러지원국 해제는 “조미(북미) 신뢰조성의 첫 걸음”이라고 평가했고, 마지막으로 든 ‘12.1조치 단행, 전면차단 기로에 선 남북관계’ 항에선 “남조선(남한)에서 새로 출범한 이명박 정권의 반복 대결정책으로 인해 북남관계는 전면차단의 중대기로에 놓이게 됐다”고 주장하며 “북측은 12.1조치가 1차적이라며 후속조치도 시사하였다”고 덧붙였음. 신문은 8번째인 라진-하산간 철도 연결 착공은 북한과 러시아간 “첫 대규모 경제협력 사업”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음.
- 북한이 새 집단체조 ‘번영하라 조국이어’를 선보인 것도 7번째 10대 뉴스로 선정됐음.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오바마 한반도·아시아 외교라인에 캠벨, 베이더 부상(12/26)

- 오바마 미 차기행정부에서 커트 캠벨 전 국방부 부차관보가 국무부 동아태차관보로 지명되고, 제프리 베이더 브루킹스 선임연구원이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담당 국장으로 다시 복귀할 것으로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음. 이들이 국무부 동아태차관보와 NSC 아시아담당 국장으로 지명된다면 사실상 한반도와 아시아 정책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고 총괄하는 두 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됨.
- 이에 따라 캠벨 소장과 베이더 선임연구원의 경력과 그들이 그동안 밝힌 북핵문제 등 한반도 정책에 대한 견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미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을 지내기도 한 캠벨은 민주당 예비경선 당시 힐러리 국무장관 내정자에게 외교안보정책을 조언한 외교안보 전략가이며 오바마 대선 승리이후 정권인수팀에서도 발탁돼 활동해왔음. 그가 소장을 맡고 있는 CNAS는 2007년 1월에 설립돼 창설한 지 1년도 안 됐지만 주요 연구원들이 오바마 행정부의 백악관과 국무부, 국방부 등 주요 외교정책 핵심자리로 차출되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인재풀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음.

- 캠벨 소장은 지난 6월 CNAS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북핵 6자회담과 플루토늄 원자로 폐쇄와 불능화라는 진전을 이뤘지만, 북한 정부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게 핵을 포기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는 평가를 한 바 있음. 캠벨 소장은 캘리포니아 대학을 졸업했고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국제관계로 박사학위를 했으며 구소련의 에레반 대학에서 음악과 정치학 과정을 이수해 수료증을 받았음.
- 또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희망한 것으로 알려진 베이더 선임연구원은 캠벨 소장과 안배 차원에서 NSC 아시아담당 국장을 다시 맡게 될 것으로 보임. 베이더 선임연구원은 국무부에서 동아태 부차관보를 역임했고 나미비아 대사로도 활동한 적이 있으며 이번 대선에서는 오바마 대선캠프에서 아시아담당 외교정책을 총괄했음.

● 한미 “北 권력내부에 의미있는 변화”(12/25)

- 한미는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유고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그 주변의 권력구도에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고 평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25일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정점으로 한 북한의 근원적인 권력구조의 변화 징조는 뚜렷하지 않지만 김 위원장 주변의 권력구도에는 의미 있는 변화가 있다는 것이 한미의 공통된 인식”이라고 밝혔다. 소식통은 “이 변화가 굉장히 의미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어떤 변화인 지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피했음.
- 그는 “한미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유고 여부와 무관하게 이런 변화에 대응하는 시나리오를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 이에 다른 소식통은 “한미는 북한에서 급변사태가 당장 발생한다기보다는 급변사태와 평시상태의 중간형태 변화가 올 수 있다는 데 인식을 하고 있다”고 전해 김정일 위원장 주변의 ‘권력 엘리트’가 교체되고 있음을 시사.
- 이와 관련, 한미 군당국도 올해 북한에서 발생할 수 있는 6대 불안정한 사태 유형에 대한 세부적인 대응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전해졌음.
- 월터 샤프 한미연합사령관은 지난 22일 성우회가 주관한 주한미군 장성 초청 ‘송년의 밤’ 행사에 참석, 연설을 통해 “한미군은 올해 북한에 대한 전면전에 철저한 준비를 했을 뿐 아니라 북한의 불안정 사태, 정권교체와 같은 시나리오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대비를 했다”고 밝혔다. 샤프 사령관은 “한미군의 모든 팀은 하나로 뭉쳐 북한의



불안정한 사태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고 강조.

● **외교부 “美, 아프간 파병 요청없어..검토안해”(12/23)**

- 외교통상부 문태영 대변인은 23일 우리 군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문제와 관련, “현재 (파병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음. 문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미국측으로부터 (파병해달라는) 공식 요청을 받은 바 없다”면서 이같이 말했음. 그는 하지만 “아프가니스탄 평화재건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앞으로 동참할 예정이며 지원방안에 대해서는 앞으로 여건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가능한 방안을 검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음.
- 정부는 아프간 지방재건팀(PRT) 요원을 지금의 30여명에서 200~300여명 규모로 대폭 증원하는 방안과 현지 경찰을 훈련시킬 교관을 파견하는 방안 등을 놓고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내년 1월 출범하는 미국의 새 행정부가 아프간 문제에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동맹국인 한국에 재파병을 요청할 가능성이 상당하다는 전망이다.
- 외교 소식통은 “작년 7월 발생한 아프간 한인 피랍사태로 아프간 파병에 반대하는 국민 정서가 지배적인 것은 사실이지만 미국이 파병을 요청한다면 국제사회에 기여하는 외교를 모토로 내 건 정부 입장에서는 상당한 고민에 빠질 수 있다”고 말했음.

● **내년 방위비분담금 7천600여억원(12/23)**

- 정부가 내년도 주한미군에 지급할 방위비분담금이 7천600여억 원으로 확정됐음. 한국과 미국은 지난 17일 내년 이후 적용될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문안에 최종 합의하고 이에 가서명했다고 외교통상부가 23일 밝혔음.
- 이번 협정은 법제처 심사를 시작으로 차관회의,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등을 거쳐 다음 달 중순께 양측간 최종 서명되며 이후 국회 비준동의 절차를 밟게 됨. 최종 타결된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문안에 따르면 한.미 양국은 연도별 분담금을 전년도 분담금에 전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CPI)를 반영해 책정하되 연도별 인상에 4%의 상한선을 적용하기로 합의했음.
- 이에 따라 2009년도 방위비분담금은 2008년도 방위비분담금 7천415억 원에 2007년도 소비자물가지수 2.5%를 반영한 7천600여억 원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 양국은 또 현금으로 지급되는 군사건설비를 3년 안에 단계적으로 현물지원체제로 전환기로 하는 한편 이번 협정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음. 따라서 이번 협정은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적용됨.
- 외교부 당국자는 “방위비분담금은 크게 한국인 근로자 인권비, 군수



지원비, 군사시설비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며 “군사시설비 중 설계·감리비용을 제외한 나머지는 2012년부터는 100% 현물 전환 된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미측이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전용하는 문제에 언급,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사업 초기부터 미측에서는 방위비분담금의 일부를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군사건설사업에 쓰겠다는 입장이었고 우리도 굳이 반대를 하지 않아 양해가 성립됐고 계속 쓰여 왔다”며 “현재의 관행을 유지해야겠다는 선에서 논의가 됐다”고 말했다.

- 이는 민주노동당과 일부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는 미측의 방위비분담금 전용을 허용한 것이어서 앞으로 비준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나. 한·중 관계

● 中 누리꾼들 “마오쩌둥 6.25 참전결정 착오 아니다”(12/26)

- 중국 누리꾼들은 마오쩌둥(毛澤東) 탄생 115주년 기념일인 26일 인터넷을 통해 마오 주석이 내린 6.25전쟁 참전 결정이 착오가 아니라고 강변했다.
- 중국 포털 사이트인 왕이(網易)와 마오쩌둥 고향인 후난성에서 발행되는 후난일보(湖南日報) 등은 이날 ‘마오쩌둥의 한반도 참전 결정은 착오’라는 책 내용을 소개하고 찬반 의견을 받고 있음. ‘마오쩌둥의 한반도 참전 결정은 착오’라는 책 내용은 영국의 역사학자이자 전기 작가인 필립 쇼트가 지난 2004년 출간한 저서 ‘마오쩌둥전(毛澤東傳)’ 내용의 일부를 인용한 것.
- 쇼트는 “마오 주석이 1950년 인민지원군 참전을 결정하면서 14만8천명을 잃는 등 40만명의 사상자를 냈다”면서 “참전 결정은 정치적 고려 때문에 군사적 판단을 기만한 일대 착오”라고 주장. 이에 대해 중국 누리꾼들은 토론방에 일제히 몰려들어 마오 주석을 반대하는 자는 미국의 주구라고 비난. 반면 6.25전쟁 참전 결정이 착오라는 입장을 개진한 누리꾼은 1명도 찾을 수 없었음.
- 베이징에 산다는 한 누리꾼은 “마오 주석은 6.25전쟁 참전을 통해 15개 서방 열강에 맞서 용감하게 항쟁했다”며 “지금은 돈도 있고 최신 무기도 있지만 정신이 없다”고 지적.

● 金통일 “대북정책 진정성 中도 이해”(12/24)

- 중국을 방문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24일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진정성을 중국에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면서 “방중 기간에 만난 중국 지도자들도 이에 대해 이해를 표시했다”고 말했다.
- 전직 주중대사 자격으로 21일부터 3박4일 일정으로 방중한 김하중 통일부 장관은 이날 베이징을 떠나기 직전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이번 방문의 목적과 일정 등에 대해 소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 김 장관은 다이빙궈(戴秉國) 외교담당 국무위원과 양제츠 외교부장,



왕자루이(王家瑞) 공산당 대외연락부장, 북핵 6자회담 의장인 우다웨이(武大偉) 외교부 부부장, 천즈리(陳至立) 전인대 부위원장 등과 잇따라 회동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의 진정성을 설명.

- 김 장관은 “중국 지도자들에게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이 강경노선으로 바뀐 것이 아니며 상생공영 정책으로서 유화적 정책이라는 사실을 강조했다”면서 “중국 지도자들은 특히 ‘비핵개방 3000’이라는 우리의 구상에 대해 경청하고 이해한다는 입장을 전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난 23일 왕자루이 부장과 3시간 가까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면서 “평소 절친한 관계인 왕 부장에게 내가 직접 요청했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남북 관계와 한중 관계에 대해 자연스럽게 많은 생각을 주고받았다”고 말했다.

● 韓中日 문화장관 제주회의 개최(12/24)

- 한국, 중국, 일본의 문화교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3국 문화장관 회의가 24일 오후 제주에서 한-중 문화장관 양자회담을 시작으로 2박 3일간의 공식일정에 들어갔다.
- 유인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차이우(蔡武) 중국 문화부장은 이날 제주도 서귀포시 씨에스호텔에서 양자회담을 열고 게임 관련 법령과 제도에 관한 정보교류와 공동연구 활성화 등 양국간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 양국 문화장관은 또 지난해 한중 수교 15주년 기념행사와 올해 8월 베이징 올림픽 관련 행사 등으로 이어져 온 양국간 문화교류를 확대하고 관광교류도 더욱 활성화하기로 했다. 특히 한중 문화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기구를 설립하기로 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진행할 실무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한·일간에는 민간 문화교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일문화교류회’가 있지만 한·중간에는 이 같은 기구가 없었음. 유 장관은 이어 아오키 다모쓰(青木保) 일본 문화청 장관과도 양자회담을 열고 내년에 도쿄에서 열릴 ‘한일축제한마당’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일본 문화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요청하고, 양국간 문화교류확대를 위해 서로 노력하기로 했다.
- 3국 장관은 양자회담을 잇달아 열고 나서 오후 8시부터 제주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린 3국 합동문화공연을 관람했다. 3국 문화장관이 한 자리에 모이는 본회의는 25일 오전 제주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되며 회의의 뒤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연대강화 ▲디지털·글로벌 시대에 문화산업 진흥협력 ▲한중일 문화유산 보호·홍보 ▲환경보호와 관련한 예술창작활동 강화 등을 담은 ‘제주선언문’을 발표할 예정. 본 회의에서는 한중일 공동영화제 개최, 아·태무형문화유산센터 설립 방안 등도 논의될 것으로 알려졌다.
- 한중일 문화장관회의는 지난해 9월 중국 장쑤(江蘇)성 난통(南通)에서 열린 1차 회의에 이어 올해 두 번째 열렸다. 3국은 문화협력



강화를 위해 이 회의를 정례화하기로 했으며 내년에는 일본에서 개최될 예정.

● 한·중 문화교류 민간기구 설립 추진(12/24)

- 한국과 중국의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간기구의 설립이 추진. 유 인춘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차이우(蔡武) 중국 문화부장은 24일 제주도 서귀포시 씨에스호텔에서 양자회담을 열고 문화교류 창구 역할을 맡을 민간기구 설립을 추진하기로 합의했음. 이를 위해 양측은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할 실무위원회를 조만간 구성하기로 했음.
- 문화부 유병한 대변인은 “한중 양국은 그동안 공식적으로는 국가 차원의 문화교류를 해왔고, ‘한일문화교류회’처럼 민간교류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기구가 없었다”면서 “양국간 민간기구의 설립은 유 장관이 제의하고 차이우 문화부장이 적극적인 찬성의 뜻을 밝힘에 따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음. 유 대변인은 “이로써 지난 5월 이명박 대통령이 방중했을 때 양국 관계가 전략적 동반자 관계로 격상됐듯 양국 문화교류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면서 “무엇보다 한중간 문화교류기구가 설립되면 우리나라는 한일문화교류회와 함께 삼각관계를 유지하면서 3국간 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다리역할을 톡톡히 해낼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음.
- 한편 유 장관은 한·중 양자회담에 이어 아오키 다모쓰(青木保) 일본 문화청 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한일관계 증진 및 한일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음. 유 대변인은 “유 장관은 역사적으로 한일 양국간에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으나 문화교류를 통해 이를 풀어나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그런 점에서 내년에 도쿄에서 열릴 ‘한일축제한마당’이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일본 문화청이 적극적으로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음. 한·중, 한·일 문화장관 양자회담은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음.

● 원자바오 中총리 친필 제주에 온다(12/23)

- 원자바오(溫家寶) 중국 총리의 친필휘호가 제주에 음. 한중친선협회는 26일 오전 10시 제주도 서귀포시 서북공원에서 원자바오 총리의 친필휘호가 새겨진 태산석현판 제막식을 개최한다고 23일 밝혔음. 이날 제막식에는 김태환 제주지사와 차이우 중국 문화부장관을 비롯해 청용화(程永華) 주한 중국대사, 이세기 한중친선협회 회장 등 100여 명이 참석함. 이세기 회장은 지난해 4월 방한한 원자바오 총리에게 서북공원의 건립 취지를 설명하고 ‘서북공원(徐福公園)’이라고 쓴 친필휘호를 받았다고 한중친선협회는 전했다.
- 서북공원은 2천여년 전 진시황의 사절로 불로초를 캐기 위해 제주를 찾았다는 서북의 여정과 함께 진시황의 청동마차와 병마용갱(兵馬俑坑)의 실물 복제품 등이 전시된 서북전시실과 서귀포시 역사관, 야외 공원 등으로 구성돼 있음.



● 한·중 지자체간 352건 교류협약..일회성도 다수(12/22)

- 한국과 중국의 수교 16년간 양국 지방자치단체간에 352건의 교류 협약이 체결됐지만 20% 이상이 일회성 교류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음.
- 주중 한국대사관은 22일 ‘한중 지자체 교류현황 백서’를 통해 “2008년 12월 현재 한국과 중국의 지방간에 자매결연 174건, 우호교류 178건 등 총 352건의 공식 교류 관계가 맺어져 있다”면서 “이는 중국의 동부 지역에 집중돼 있다”고 밝혔음.
- 백서는 서울과 베이징(北京), 부산과 상하이(上海), 인천과 톈진(天津) 등 도시의 성격에 따라 양국 지자체들이 잇따라 자매결연을 맺었고, 구청 등 기초단체들끼리도 광범위한 교류 관계가 맺어져 있다고 기술했음. 그러나 백서는 서울시와 베이징시의 교류 수준을 포함해 350여건의 협약 중 20% 이상인 70여건의 활동에서는 교류가 사실상 중단됐음을 의미하는 평가를 내렸음.
- 한국대사관 관계자는 “일부 지자체는 단체장의 방중 등 이벤트성 행사를 위한 행정 교류와 표면적인 인적 방문에 그친 것이 많았다”면서 “앞으로 양측 지자체간 인적 방문에 편중된 평면적인 교류에서 나아가 경제 교류와 청소년간 교류 등 분야를 다양하게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음.
- 특히 대부분의 자매결연과 우호협약이 중국의 대도시와 상하이 등 동부 연안의 발달된 도시, 동북3성 등 동부 지방에 집중되는 등 편중 현상이 심했고 서부 미개발 지역과 협약이 맺어진 사례는 찾기 어려웠음.
- 1천850쪽 분량의 이 백서는 ‘중국개황’, ‘중국 지방정부 일반개황’, ‘한중 자치단체 교류현황’ 등 3부분으로 나뉘어 발간됐음.

다. 한·일 관계

● 정부, 日 ‘독도는 일본땅’ 홍보에 항의(12/28)

- 정부는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독도가 자국영토라는 주장을 담은 홍보자료를 10개국 언어로 게재하고 같은 내용의 팸플릿을 각 공관에 배포하고 있는 데 대해 엄중 항의했음. 외교통상부는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본 외무성이 홈페이지에 ‘다케시마(독도)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인트’라는 제목의 홍보자료를 게재한 데 대해 문서 등을 통해 엄중 항의하고 이를 삭제할 것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고 밝혔음.
- 외교부는 또 “일본 외무성이 이 홍보자료를 기존의 3개 언어에서 10개 언어로 확대해 게재한 데 대해서도 엄중 항의하고 삭제할 것을 거듭 강력히 요구했다”고 말했음.
- 일본 외무성은 지난 2월 ‘다케시마 문제를 이해하기 위한 10가지 포



인트'란 홍보자료를 일본어와 한국어, 영어 등으로 제작해 홈페이지에 게재했으며 이달 초에는 아랍어와 중국어 등 7개 다른 언어로도 제작, 재외공관을 통해 대량으로 배포하고 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7일 보도.

- 우리 정부는 일본 외무성의 홍보자료에 대응하기 위해 '독도의 진실(The Truth of Dokdo)'을 비롯한 각종 홍보자료를 재외공관 등을 통해 외국에 배포하는 한편 외교부 홈페이지에 '독도는 한국영토'임을 알리는 자료를 10개국어로 게재해 왔음.

● 한·일, 서울서 내달 정상회담 개최(12/27)

- 한국과 일본이 다음달 초 서울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하고 최종 일정을 조정 중인 것으로 27일 확인됐음. 정부 당국자는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내달 10~12일 어간에 1박2일 일정으로 방한할 예정”이라며 “정확한 날짜는 아직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음.
- 한·일 양국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양국 관계뿐만 아니라 북한문제를 비롯한 지역 및 국제사회에서의 협력 방안 등에 논의할 예정이라고 이 당국자는 전했다.
- 이명박 대통령이 아소 총리와 가진 양자 회담은 지난 10월 24일 베이징(北京), 지난 13일 후쿠오카(福岡)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
- 두 정상은 지난달 23일 페루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기간과 지난 13일에도 각각 한미일 정상회담과 한중일 정상회담을 계기로 지역 및 국제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음.
- 외교소식통은 “양국 정상이 10월 정상회담에서 셔틀외교를 복원하기로 합의하고 나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달 초 일본 후쿠오카를 방문했던 것”이라며 “내달 아소 총리의 방한으로 한일 정상간 셔틀외교가 완전히 복원되는 것”이라고 평가했음.
- 지난 2월 이 대통령과 취임 축하차 방한한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당시 일본 총리가 복원하기로 합의했던 양국간 셔틀외교는 지난 7월 일본의 중등교과서 해설서 독도영유권 명기 강행으로 중단됐었음.

● “아소 日총리 내달 방한 추진”(12/22)

- 아소 다로(麻生太郎) 일본 총리가 내달 10일부터 사흘간 일정으로 한국 방문을 하는 방향으로 양국간 조정이 진행 중이라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일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22일 보도. 이는 양국 정상이 매년 한차례 상호 방문하는 ‘셔틀 외교’의 일환.
- 아소 총리는 이명박(李明博)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세계적인 금융위기에 대한 대응 및 북한 핵문제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 셔틀 외교는 지난 2월 후쿠다 야스오(福田康夫) 당시 총리가 취임식 참석차 방한한 자리에서 가진 이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재개기로 결정했고 이 대통령은 지난해 4월에 일본을 방문했음. 하지만 이후



후쿠다 전 총리가 사퇴하고 아소 총리가 취임하는 등 일본내 정치 일정이 겹치면서 일본 총리의 연내 방한이 어려워졌음.

- 내달 5일 일본 정기국회가 소집되지만 아소 총리측은 내달 12일의 공휴일(성인의 날)과 이에 앞선 토, 일요일을 활용하면 한국 방문이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음.

● “日, 1973년 남북 교차승인 검토”(12/22)

- 1975년 헨리 키신저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유엔총회에서 중국과 소련이 남한을 승인하고 미국과 일본이 북한을 승인하는 교차승인을 제안하기 2년 전부터 일본도 이런 구상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 22일 공개된 일본 외무성의 외교 문서에 따르면 1973년 다나카 가쿠에이(田中角榮) 당시 총리는 리처드 닉슨 미국 대통령과의 회담에 앞서 준비한 ‘총리 발언 요령안’에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음. 요령안에는 미국에서 ‘소련, 중국의 한국 승인’에 대한 질문이 나올 경우의 답변이란 항목에서 “북한의 태도로 볼 때 당분간은 기대하기 어렵다”면서도 “장기적인 방향으로 북한과 한국의 승인을 일괄 거래하는 방안 이외에 한반도에 관한 어떤 국제적인 틀을 만드는 방안도 필요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음.
- 이와 관련, 일본 릿쿄(立教)대 이종원 교수(국제정치학)는 마이니치(毎日)신문에 “키신저씨가 국무장관이 됐던 1973년부터 교차 승인과 같은 논의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 “日외상, 1957년 韓유엔가입 공동제안 거부지시”(12/22)

- 일본 외상이 1957년 한국의 유엔 가입 문제와 관련, 한일간 국교정상화 미수립 등을 이유로 일본이 공동제안국으로 참석해 달라는 미국의 요청을 거부하려 했던 것으로 22일 공개된 외무성의 외교문서에서 확인됐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이날 보도.
- 1957년 10월의 외교문서에 따르면 한국과 베트남의 유엔 가입과 관련, 미국으로부터 공동제안국에 참가해 달라는 요청을 받은 데 대해 기시 노부스케(岸信介) 당시 정권의 후지야마 아이치로(藤山愛一郎) 외상은 마쓰다이라 고토(松平康東) 유엔대사에게 이를 거부하도록 지시. 후지야마 전 외상은 그 이유로 국교정상화 등과 관련한 양국간 협상 상황, 외교관계 부재, 이승만 당시 한국 대통령의 일본에 대한 비우호적 발언 등을 이유로 제시.
- 그러나 마쓰다이라 당시 유엔대사는 “대한(對韓) 관계에 대한 고려보다는 우리나라 본래의 입장, 특히 자유 진영의 일원으로서의 입장으로 공동제안국이 될 필요가 있다”며 “그렇게 하는 것이 장래 우리나라 외교의 신뢰를 확보할 수 있다”라고 적극적으로 재검토를 요청했음. 결국 일본은 공동제안국이 됐지만 당시 한국의 유엔 가입은 이뤄지지 않고 1991년 9월 남북 동시가입 때까지 보류됐음.
- 문서에 따르면 당시 미국은 일본에 “(한국에 대한 공동 제안국이 되



지 않는 것은) 자유진영의 입장으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독려했던 것으로 나타났음.

라. 미·중 관계

● 中 “라이스 미국무 내년초 방중”(12/23)

- 중국은 콘돌리자 라이스 미국 국무장관이 내년 초에 중국을 방문한다고 23일 밝혔음. 친강(秦剛)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3일 정례브리핑에서 “라이스 장관이 내년 중·미 수교 30주년을 기념하는 축하 행사 참석차 중국을 방문할 것”이라면서 “라이스 장관은 방중 기간에 중국의 지도자들을 만나고 양국 외무장관간 회담도 가질 것”이라고 말했음.
- 그는 “구체적인 방문 시기나 일정 등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상이 진행 중”이라면서 적절한 시기에 구체적인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음. 라이스 장관은 22일 AFP통신과 회견에서 “새해 1월 1일 이후에 미-중 관계 복원 30주년을 맞아 중국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중국 방문은 마지막 여행이 될 것”이라고 방중 계획을 밝힌 바 있음.

마. 미·일 관계

● “사토 전 日총리, 美에 유사시 핵보복 요청”(12/22)

- 사토 에이사쿠(佐藤榮作) 전 일본 총리가 중국의 첫 핵실험 직후인 1965년 1월에 취임 후 처음 미국을 방문한 자리에서 “(일본이 핵공격을 받을 경우) 미국이 즉각 핵 보복을 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고 교도(共同)통신 등 일본 언론이 22일 보도.
- 에이사쿠 전 총리는 린든 존슨 당시 미국 대통령 정권의 로버트 맥나마라 국방장관과 회담에서 이같이 말해 일본이 중국으로부터 핵공격을 받을 경우엔 미국이 해양에 파견한 핵잠재 함선에서 핵무기를 이용한 보복 공격을 해줄 것을 요구한 것으로 확인됐음. 이런 내용은 일본 외무성이 22일자로 공개한 외교문서에서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음.
- 또 당시 존슨 대통령이 사쿠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핵우산’을 확인해 준 것도 일본측의 이번 문서를 통해 드러났음. 사토 전 총리는 방미 중이던 1월 12-13일 이틀간 존슨 대통령과, 그리고 13일에는 맥나마라 국방장관과 회담했음. 회담 기록에 따르면 12일 존슨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사토 당시 총리는 1964년 10월 중국이 실행한 핵실험을 염두에 두고 미국의 일본에 대한 핵우산을 보증해 줄 것을 요청,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내가 보증한다”는 언질을 받았음.
- 사토 당시 총리는 이어 맥나마라 장관과의 회담에서도 “(일본에 대한) 핵무기 반입을 하려면 안보조약상 (사전 협의가 필요하다) 규정돼 있다”면서 “전쟁이 일어날 경우엔 미국은 즉각 핵공격을 포함



한 반격을 해달라”, “해상의 핵탐재 함선이라면 즉각 발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등 유사시 일본 영해내의 핵탐재 함선의 진입도 용인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되는 발언도 했음. 맥나마라 장관도 “해상에 있는 핵탐재 함선의 경우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고 답했음.

- 외교문서 공개는 이번이 21회째다. 이번엔 1945~1976년 사이의 약 11만2천쪽의 문서가 공개됐음.

바. 중·러 관계

● “중·러 방산협력 복원 본격화”(12/22)

- 지난 2005년 이후 소원했던 중국과 러시아 간의 군사기술 협력이 본격적으로 복원될 전망. 베이징의 군사소식통은 22일 “최근 베이징에서 개최된 중·러 군사기술협력회의에서 양국이 그동안 정체된 기술협력 분야의 협력을 강화키로 해 앞으로 양국간 방산 분야의 협력이 본격적으로 복원될 것”이라고 말했음.
- 이 소식통에 따르면 이달 중순 양국 국방장관 회담을 겸해 열린 양국 군사기술협력회의에서 중국은 러시아제 수송기 27과 30을 라이선스 계약 방식으로 생산하고, 자국의 전략적 공군 건설에 필요한 러시아의 대형 수송기를 구매기로 했음.
- 량광례(梁光烈) 중국 국방부장은 지난 10일 아나톨리 세르듀코 러시아 국방장관과 회담을 한 뒤 기자회견을 갖고 “중국과 러시아는 내년에 테러 진압을 위한 합동 군사훈련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음. 량 부장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데 광범위한 합의를 했다고 말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을 밝히지 않았음.
- 그러나 양국 회담에서 수송기 구매계약과 전투기의 라이선스 방식으로 생산기로 하는 등의 성과를 낸 것으로 볼 때 이를 계기로 2005년 이후 양국간 ‘기술 도용’ 논란으로 사실상 중단됐던 방산 분야의 교류·협력이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임.

사. 기타

● 외교부, 탈북자 영문표기 ‘refugee’로 통일(12/28)

- 외교통상부가 그동안 여러 용어가 병용돼 왔던 탈북자의 영문표기를 ‘난민’이라는 뜻의 ‘North Korean Refugee’로 통일했음.
- 외교 당국자는 28일 “탈북자의 영문표기에 대해 그동안에도 난민이 가장 많이 쓰이기는 했지만 이와 함께 망명자(Defector)와 피난처를 찾는 사람(Asylum seeker) 등이 혼용돼왔다”면서 “최근 외국 정부에 관련 서한을 보내기 위해 검토한 결과, ‘난민’으로 통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음.
- 외교부는 ‘난민’이라는 용어가 정치적·경제적 사유로 북한을 떠났으며 보호해야 할 대상이라는 뜻이 내포돼 있다는 점에서 주로 정치적



이유에서 비롯되는 ‘망명자’나 일반적인 표현인 ‘피난처를 찾는 사람’이라는 용어보다 적합하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법적으로 우리 국민인 북한 주민을 우리 정부가 ‘난민’으로 부르는데 있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견해도 있지만 ‘난민’이 외국 정부가 우리 정부의 탈북자 정책을 이해하는데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 정부는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자가 한국행을 희망하는 경우 인도주의와 동포애 차원에서 전원 수용한다는 원칙을 세워두고 있음.

● 中-대만 석유 협력협정 체결(12/27)

- 중국해양석유유한공사(CNOOC)와 대만 국영 정유업체인 CPC는 26일 석유개발에 대한 4개항의 협정을 체결했다고 신화통신이 보도.
- 푸청위(傅成玉) CNOOC 이사장과 워넛트 판 CPC CEO간에 서명된 협정은 ▲양사가 석유개발 협력을 강화한다는 내용의 의향서 ▲대만해협 타이난(臺南) 해역과 광둥(廣東)성 연안 차오저우(潮州) 및 산터우(汕頭) 해역 석유공동 개발에 대한 수정계약 ▲CNOOC의 케냐 해양 석유개발 구간의 권리 양도 등을 골자로 하고 있음.
- 중국-대만간 석유개발 협력 협정은 양안이 최근 들어 3통(通航·通郵·通商)이 실현되는 등 봄날을 맞고 있는 가운데 이뤄졌음.

● 러 3년내 핵미사일 70기 증강 배치(12/23)

- 러시아군이 앞으로 3년간 최소한 핵미사일 70기 이상을 증강 배치하는 등 1천400억 달러 상당의 무기를 보강할 계획이라고 러시아 정부 고위 관리가 밝혔음.
- 22일 인테르팍스 통신 등 러시아 언론에 따르면 군수 산업을 총괄하는 러시아 군산(軍産)위원회 블라디슬라브 푸틸린 부위원장은 “70기 이상의 전략미사일과 30기의 단거리 이스칸데르 미사일, 발사추진 로켓, 항공기 등을 구입해 향후 3년간 군 기지에 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 푸틸린 부위원장은 이어 러시아군이 전투기 48대, 무인정찰기 6대, 헬리콥터 60여대, 군함 14척, 탱크 300여 대도 사들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 이러한 러시아군의 2009~2011년 무기 구입비용은 4조 루블(1천4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됨. 러시아는 구 소련 시절의 무기를 대체하기 위한 무기 현대화와 함께 군 병력의 기동성 강화도 모색하고 있음.



[참고 1] <2008 10대 북한 뉴스> (연합뉴스, 12/22)

(서울=연합뉴스) 최선영 기자 = 북한은 정권 수립 60주년(9.9)을 맞아 올 해 주민들에게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일심단결’과 경제발전 매진을 촉구하며 ‘역사적 전환의 해’라는 커다란 의의를 부여했지만 식량난은 여전한 채 김 위원장의 건강이상 문제가 최대 화두로 등장하면서 빛바래고 말았다.

북한관련 10대 주요 뉴스들로 올해 북한의 대내외 정세 흐름을 되돌아 봤다.

▲김정일 건강이상설 = 김 위원장이 8월 14일자 군부대 시찰 보도를 끝으로 공개석상에 모습을 안보이면서 시작된 그의 건강이상설은 북한정권 수립 60주년(9.9) 열병식 불참을 계기로 기정사실화했다.

그는 10월초 축구경기 관람과 군부대 시찰 보도를 계기로 외부활동을 재개함으로써 ‘진재’를 과시했으나 공개된 사진들에서 종래와 달리 왼손의 움직임이 거의 없어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의 건강이상설은 외부 세계에 북한체제의 장래에 관한 무성한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됐다.

▲이명박 정부와 대립 = 남한의 새 정부 출범 초기 침묵하던 북한은 4월 1일자 노동신문 ‘논평원 글’을 통해 이명박 대통령을 “역도”로 부르며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 본격적인 공격에 나섰다.

북한은 6.15와 10.4선언의 계승 요구를 바탕으로 깔고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설에 따른 남측의 대응과 대북 전단 살포, 남한 정부의 유엔 대북인권 결의안 공동제안 등에 반발하다 개성관광 중단과 개성공단 체류인원 감축 등을 포함한 ‘12.1조치’로 남북관계를 동파 직전까지 몰고 갔다.

▲냉각탑 폭파와 테러지원국 굴레 탈피 = 북한의 핵신고서 제출에 이어 부시 미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절차에 착수하자 북한은 6월 27일 영변 원자로 냉각탑의 ‘폭파쇼’로 부시 행정부에 화답했다.

핵검증의정서에 시료채취 포함 문제로 해제가 지연되자 북한은 핵시설 불능화 중단이라는 ‘벼랑끝 전술’로 맞서 결국 10월 11일 ‘시료채취 불가’ 원칙을 고수한 채 미국으로부터 명단 삭제를 얻어냈다.

▲뉴욕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평양 공연 = 뉴욕필이 2월 26일 동평양대극장에서 남북한을 비롯해 전세계에 생중계되는 가운데 평양공연을 가진 데 이어 다음날엔 평양 모란봉극장에서 북한 국립교향악단과 사상 처음으로 실내악 협연을 가졌다.

북한과 미국의 국가가 연주되는 등 ‘오케스트라 외교’라고 불린 이 공연은 그 이후 이뤄진 미국의 대북 식량지원 재개, 핵신고서 협상 타결 등 북미간 관계 진전을 예고한 것이었다.



▲금강산 관광객 피격 사망 = 7월 11일 금강산 관광객 박왕자씨가 북한군의 해안초소 가까운 곳에서 총격을 받고 사망했다. 정부 합동조사단은 박씨가 식별이 가능한 오전 5시15분께 정지 또는 천천히 걷던 상태에서 100m 이내 거리에서 피격됐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았다.
남한 정부가 금강산 관광의 잠정 중단을 발표하자 북한은 이튿날 박씨의 사망에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책임은 관광객에게 있다며 남한의 현장조사 요구를 거부하고 관광중단을 “도발”이라고 비난했다.

▲북한 정권 수립 60주년 기념 = 북한은 올해 신년 공동사설에서 ‘공화국 창건 60돌을 맞는 올해를 조국 청사에 아로새겨질 역사의 전환의 해로 빛내이자’라는 구호를 제시하며 그 어느 때보다 일심단결을 강조하고 경제발전과 주민생활 향상을 위해 “총공격전”을 벌일 것을 촉구했다. 집단체조 ‘번영하라 조국이여’를 새로 내놓고 평양시내의 외관을 일신하는 한편 다양한 경축 행사로 분위기를 띄웠으나 김정일 위원장의 와병설 확산으로 체제의 불안한 미래를 부각시키는 결과를 빚었다.

▲휴대전화 서비스 재개 = 북한은 중동지역 최대 이동통신사인 이집트 오라스콤 텔레콤의 투자를 유치해 룡천역 대폭발 사건 직후인 2004년 6월 중단했던 휴대전화 서비스를 12월 15일 재개했다.
‘고려 링크’라는 이름의 이 휴대전화 서비스는 음성통신에 국한되지만 오라스콤은 향후 3년간 4억 달러를 투자해 평양 등 3대 주요 도시를 시작으로 휴대전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북한은 당초 2002년 태국 록슬리그룹과 제휴로 휴대전화 서비스를 시작했었다.

▲라진-하산 철도 연결 = 북한과 러시아는 4월 북한의 라진항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의 하산을 잇는 연장 54km 철도의 현대화 계약을 체결하고 10월 착공식을 가졌다. 7월엔 북한 30%, 러시아 70%의 지분으로 라선국제컨테이너수송합영회사를 설립하고 10월 이 회사에 1억4천만유로의 출자를 완료했다.
철도 연결이 완공되면 연간 400만t에 10만개의 컨테이너 수송 능력이 예상된다. 북한은 라진항 개선과 라진-하산 철도를 통해 시베리아횡단 철도(TSR)로 이어지는 ‘국제 물류허브’의 꿈을 꾸고 있다.

▲베이징올림픽서 16년래 최고 성적 = 베이징올림픽에 선수 63명, 임원 71명 등 역대 최대인 134명의 선수단을 내보낸 북한은 금메달 2, 은메달 1, 동메달 3개로 1992년 바로셀로나올림픽 이후 16년래 최고의 성적을 거뒀다.
2000년과 2004년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이 없었다. 북한에 첫 금메달을 안겨준 여자 역도의 박현숙(63kg급)은 북한 역도 사상 올림픽 첫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중국 2인자 시진핑 방북 = 중국의 차세대 지도자로 꼽히는 시진핑(習近平) 국가 부주석이 취임 후 첫 방문지로 6월 북한을 찾았다. 북한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면담하는 등 그를 '정상급 의전'으로 예우했다. 시 부주석의 방북은 미래 중국 최고지도부와 북한 지도부간 상견례 형식이었지만 방코 델타 아시아(BDA)에 동결된 북한 자금문제로 한동안 소원했던 양국관계의 회복을 상징한 것이기도 했다.

chsy@yna.co.kr

출처(연합뉴스):

<http://www.yonhapnews.co.kr/politics/2008/12/22/0511000000AKR20081218195100014.HTML>

☉ 국제관계연구실 제공